

기획재무본부 직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
2015년 시작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 동안 공단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호남 고속철도 및 포항 KTX 개통사업이 있었습니다. 또한 부채감축과 수익창출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. 내부적으로 2015년 상반기 부서평가, 개인 및 성과평가 등이 마무리 되었습니다.

말은바 소임을 충실히 완수해 주신 직원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

기획재무본부 직원여러분!

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, 지난해 공단의 최대 취약점 하나를 들라면 많은 분들이 '부패'라는 단어를 한 번쯤 떠올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단 한건의 부패가 발생하면 자신은 물론, 가족, 회사 등 모두에게 큰 누가 될 뿐 아니라, 부정행위를 한 상대까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.

이에 우리본부에서는 2015년도 부패제로를 목표로 '반부패 추진계획 수립', '윤리실천단 회의', '청렴지킴이

워크숍', '반부패 제도개선', '청렴교육'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청렴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고, 이에 따라 한건의 부패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정직과 신뢰로 청렴한 업무수행을 해 주신 우리본부 직원 여러분께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.

이제 장마가 끝나고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움 속에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었습니다. 윤리적으로 유혹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모두가 청렴이란 두 글자를 가슴과 머리에 크게 새겨서 우리본부 직원 모두가 공단 청렴지킴이가 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
아울러 더운 날씨에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,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 잘 다녀오세요. 감사합니다.

2015. 7. 30

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재무본부장 박인서